

요약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나, 보험 가입률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약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임. 반려동물보험은 가입 대상과 상품 종류가 제한적인 편이며, 최근에는 자기부담률 0% 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 등장해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제기됨.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부담률 설정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고, 규제 비례성을 적용하여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양육가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 받고 있으며, 현 정부도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백신 접종 확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반려견 수명이 평균 15~20세로 연장되었고,¹⁾ 진료비 부담이 큰 노령견의 비중도 증가함²⁾
 - 윤석열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 주요 항목 20종에 대한 권장 표준 진료 절차를 고시하였으며,³⁾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하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에 대한 이해도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⁴⁾
 -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 진료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험 가입·청구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음⁵⁾
-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2024년 상반기 기준 반려동물보험 보유계약건수는 13.3만 건, 원수보험료는 328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

1) 이화영·김현욱·심훈섭 외 (201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2) 안병길 의원 보도자료(2022. 10. 4), “반려동물도 고령화 시대, 펫보험 가입 못하는 고령견 40% 이상”; 등록된 반려견 중 9세 이상 반려견의 비중은 2021년 기준 41.4%로 2019년 37.7%에 비해 증가함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30호(2024.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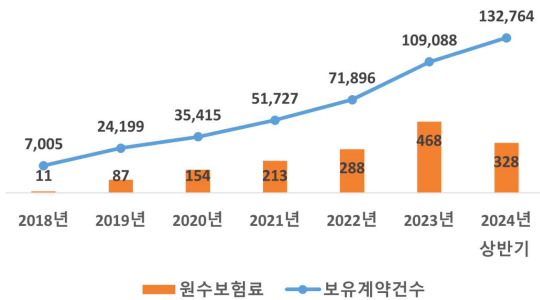
4) 「수의사법」제20조의4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진료비용(지역·항목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을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https://animalclinicfee.or.kr/>)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10. 16),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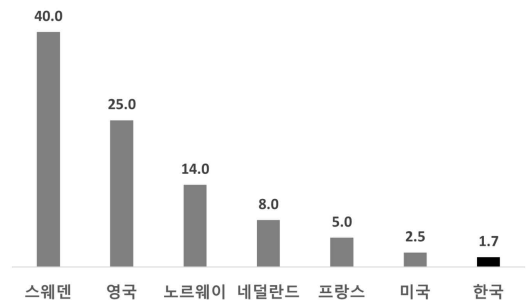
- 그러나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약 1.7%이며⁶⁾, 이는 스웨덴(40.0%), 영국(25.0%), 미국(2.5%)에 비해 낮은 수준임(〈그림 2〉 참조)

〈그림 1〉 국내 반려동물보험 실적
(단위: 억 원, 건)



자료: 11개 손해보험회사 통계

〈그림 2〉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Trupanion(2022. 11), "Trupanion Investor Presentation"; NAPHIA(2022. 5),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 반려동물보험은 가입 대상과 상품 종류가 제한적인 편이며,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지 않고 다소 비경쟁적인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국내 반려동물보험은 개·고양이를 제외하고 특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존재하며,⁷⁾ 반려동물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연령이 대부분 만 10세 이하로 제한적인 편임
- 반려동물보험시장 내 혁신과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경쟁이 촉진되어야 하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반려동물 특화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지 않음
 -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2024년 상반기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보험회사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 2024년 6월 28일 삼성화재가 지분 투자한 주식회사 '마이브라운'이 최초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신청하였으나,⁸⁾ 그 외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반려동물보험은 보장범위와 요율이 기존보다 다양화·세분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부담률이 0%인 보험상품이 등장해 병원 및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제기됨

- 보험개발원에서 올해 초 참조순보험료율을 품종·연령에 따라 세분화·다양화하였음⁹⁾

6) 반려동물 수 대비 보험계약 건수로, 반려동물 수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정치인 개·고양이 포함 799만 마리를 이용함. 최근 반려동물 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입률 추정치인 1.7%는 과대평가된 수치일 수 있음에 유의바람

7) 반면 미국의 Nationwide는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특수 반려동물에 대한 특정 사고·질병을 보장함

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26호

9) 연령은 20살까지 요율이 확장 개발되고, 품종도 기존 2그룹에서 '소형견 할인요율'이 추가된 3개 그룹으로 세분화됨

- 자기부담률은 대체로 20~50% 선이었으나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률 0% 또는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 진료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자기부담금(Deductible)은 보험이 적용되기 전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이며,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이후 자기부담률(Coinsurance)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을 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됨
 - 자기부담의 축소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표 1〉 국내 반려동물보험 상품 주요 내용

구분	A사	B사	C사
가입연령	만 10세까지 (갱신 시 만 20세까지)	만 10세까지 (갱신 시 만 20세까지)	만 10세까지 (갱신 시 만 20세까지)
등록 여부	등록 확인 시 할인(2%)	등록 확인 시 할인(2%)	등록 확인 시 할인(2%)
자기부담률	20, 30, 50%	無, 10, 20, 30, 50%	10, 20, 30, 50%
자기부담금	1, 2, 3만 원	1, 2, 3, 5, 10만 원	無, 1, 3, 5만 원
가입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1일 200만 원 한도(연간 총 200만 원 한도) • 입·통원: 1일 15만 원 한도(입·통원 각각 연간 총 500만 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통원: 1일 10, 15만 원 한도 • 수술비 확대 특약: 수술확대 600만 원, 입·통원 1,500만 원 (입·통원한도 초과 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통원, 수술 포함 연간 총 2,000만 원 한도 • 수술: 1회 200, 250만 원 한도/연 2회에 한함 • 입·통원: 1일 10, 15만 원 한도
피부·구강·탈구질환	기본계약	기본계약	특약
배상책임	1,000만 원 (자기부담 3만 원)	500, 1,000, 3,000만 원 (자기부담 10만 원)	3,000만 원 (자기부담 3만 원)
면책 기간	질병	30일	30일
	슬관절· 고관절	1년	1년
가입채널	전 채널	설계사, 대리점, CM	설계사, 대리점, TM, CM

주: A, B, C사의 장기상품 주요 내용임

자료: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및 약관을 참고함

○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부담률 설정 등을 통한 손해율 관리, 규제의 비례성 적용을 통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시장 진입 촉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손해율 관리를 위해서는 소비자 비용 부담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액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는 특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버퍼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의 반려동물보험은 10% 이상의 자기부담률이 존재하고, 자기부담금은 \$0 ~ \$1,000 정도로 소비자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표 2〉 참조)¹⁰⁾
 - 영국 보험회사는 반려동물의 특정 연령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상승시켜 손해율을 관리함¹¹⁾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사업자의 반려동물보험시장 진입을 유인하고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펫용품 커머스, 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운영하여 소비자 접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 제공에 비교우위를 가진 플랫폼·인슈어테크 기업의 반려동물보험 시장 진입을 통해 산업 내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으나, 이들은 자본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보험시장 진입이 쉽지 않음
 -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기간은 1년이고 반려동물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편이므로 일부 인적 요건의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음¹²⁾
 - 신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를 위해 K-ICS 도입에 따라 이전 제도(RBC)보다 강화된 일반손해보험위험 평가를 다소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보험 비교·추천서비스¹³⁾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반려동물보험의 비교, 가입 및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한 금융 플랫폼은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소비자들에게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상품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음
 - 한편 가격 및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갖춘 인슈어테크·보험회사는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 참여할 유인이 있어, 해당 서비스는 보험회사 간 경쟁과 상품 혁신을 촉진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것임

〈표 2〉 미국 반려동물보험 상품 주요 내용

구분		Trupanion	Embrace	Healthy Paws
가입연령		만 14세까지	만 14~15세까지	만 14세까지
자기부담률		10%	10, 20, 30%	10% ~ 50%
자기부담금		\$0 ~ \$1,000	연간 \$100, \$250, \$500	연간 \$100 ~ \$1,000
연간 한도		無	無	無, \$5,000, \$10,000
면책기간	상해	5일	2일	15일
	질병	30일	14일	15일
	십자인대·고관절	30일	6개월	1년

자료: MarketWatch Guides (<https://www.marketwatch.com/guides/pet-insurance/>)

- 10) 자기부담률 및 자기부담금이 높고 연간 한도가 낮을수록 보장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는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소비자는 보장 필요성 및 선호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 11) 영국 반려동물보험회사의 가격 책정은 반려동물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자연 인상분과 별개로 반려동물이 특정 연령 도달 시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구조임. ManyPets의 경우 반려견이 9살이 된 시점부터 보험료를 99유로 인상하며, 보험금 청구 시 청구액의 20%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도록 함. PetPlan도 반려견이 10살이 된 시점부터 보험금 청구 시 청구액의 20%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도록 함. 다만 Petsure는 이와 관련한 마케팅 전략으로 노견에 대하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음
- 12)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한 모회사의 선임계리사, 준법감시인 등이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검칙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13) 2024년 7월부터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여러 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 월 예상 보험료, 보장범위, 보장 비율 등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펫보험 비교' 서비스를 선보임